

청소년 비행의 원인

— 사회통제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중심으로* —

이 태 원**

- I. 시작하는 글
- II. Hirschi의 사회통제 이론에 대한 검토
- III. 연구방법
- IV. 조사결과와 토론
- V. 결론 및 앞으로의 과제

I. 시작하는 글

지금까지 범죄사회학 분야에는 상호경쟁적이며, 보완적인 청소년비행에 관한 많은 설명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 중 몇몇은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경향이 있는 반면, 또 다른 것들은 경험적 검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문화적 이탈이론과 아노미이론이 미시적 수준에서의 조작화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라면, 낙인이론과 민속방법론은 이론적 근거의 부족으로 인하여 비판받아

왔다.

이와같은 이론과 경험적 검증사이의 문제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이론이 사회통제이론의 대표적인 흐름인 Hirschi의 사회연대이론 *social bonding theory*이다. 사회연대이론은 중요한 “이론적 기여”로서 (Krohn and Massey, 1980 : 529) 그리고 “비행분야에 있어서 이론구성과 경험적 조사를 위한 이정표”(Wiatrowski et al., 1981 : 525)로서 묘사되어져 왔다. 더욱이 사회통제이론을 유망한 이론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기술하면서, Shoemaker(1984)는 연대이론이 사회적 수준과 개인상호간의 수준에 있어서 이론적 관점들의 통합과 종합을 위한 잠재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Gardner, 1984 : 7). 특히 Hirschi의 경험적-이론적 접근은 지난 20년간 출현한 일탈행동에 관한 저술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것과 비

*이 글은 1988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조교수

교하여 서너가지 결정적 장점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 이론은 저자의 조사발견에 의하여 직접 검증되어 왔다는 사실로 인하여, 앞으로의 경험적 검증을 버티어 내기가 더욱 쉬울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이론은 “실재” 세계와 적어도 어느정도 일치할 것이라는 어떤 보증을 가진 원리속에서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Hirschi의 이론은 이 점에서 충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이 이론의 많은(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명제들은 이론가 그 자신에 의하여 조작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이후의 계속적인 검증과 해석에 있어 애매성이 덜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조사이론의 접근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경험적 조사없이 수십년동안 존재해 왔을지도 모르는 이론들의 확산과, 그리고 본질적으로 반이론적인 조사발견의 증대가 감소될 것이라는 점이다(Hindelang, 1973 : 471).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장점을 지닌 Hirschi의 사회연대이론을 우리사회의 청소년비행을 통하여 검증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사회도 선진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청소년비행과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회학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너무 부족하였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비행이론에 대한 통제이론적 관점의 경험적 분석은 거의 전무한 편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¹⁾. 이러한 점에서 이글은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우리사회에서의 거의 최초

의 경험적 검증일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하의 논의를 통하여 이 글은 첫째, Hirschi(1969)의 사회연대이론을 살펴보고, 둘째 Hirschi 이후에 그의 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이론이 어떻게 비판·수정·확대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위의 두가지 점토를 기초로 하여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경로분석 *path analysis*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Hirschi의 사회연대이론이 우리사회의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데 얼마나 적합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통제이론의 검증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도 지적해 보고자 한다.

II.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검토

1. Hirschi의 사회연대이론

Hirschi(1969)는 긴장이론과 문화적 이탈이론 그리고 사회통제이론의 기본가정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것을 통한 긴장이론과 문화적 이탈이론의 비판을 그의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Hirschi는 T. Hobbes의 인간에 대한 가정을 받아들임으로써, 긴장이론의 기본가정인 ① 도덕적 인간관의 수용, ② 인간의 관례적 사회체계에 대한 강한 결속, 그리고 ③합법적

1) 이 분야에 대한 기성 사회학자의 연구는 김준호 외(1990)와 남재봉(1990)의 연구가 있다. 전자는 아노미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매개변수로 사회연대 요소중 “수용”과 “부모의 불인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후자는 비행의 원인에 대한 다변인적 연구중 “부모와의 결속”을 하나의 변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목표에 대한 공통적 열망 등을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로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① 이러한 전제에 의하면 인간의 일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강열한 좌절”이 일탈의 동기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강한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례적 기대에 동조하고 있는 기간의 일탈 유예를 설명하기 힘들게 된다. ②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궁극적으로는 법을 지키는 성인으로 성장한다. ③ 비행은 하층계급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마지막으로 높은 열망이 비행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Hirschi, 1969 : 5-10).

Hirschi는 또한 문화적 일탈이론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이 이론은 사람은 일탈적 행위를 저지를 수 없다고 가정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개인은 중간계급사회의 기준에 의하면 일탈된 행위를 범할지 모르지만, 그 자신의 기준으로부터 볼 때 일탈된 행위를 범할 수는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학파의 이론가들은 일탈행위란 더 큰 사회(좀 더 강력한)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련의 기준에 대한 동조로 본다. 만약 공동체의 기준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관례적 사회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법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행위는 당연히 더 큰 사회의 기준과 반대될 것이다. 명백히, 만약 일탈행동이 내부사람 *insiders*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부사람 *outsiders*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것이라면 일탈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동기적 힘이나 긴장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1969 : 11).

긴장이론가들은 Hobbes의 질문은 대답되었으며, 그 중요한 질문은 “왜 사람들은 사회의 규칙에 복종하지 않는가”라고 가정한다. 따라

서 동조는 당연한 것이 되며, 일탈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통제이론들속에서 Hobbes의 질문은 결코 적합하게 대답된 적이 없다. 질문은 “왜 사람들은 사회의 규칙에 복종하는가”하는 것 그대로 남아 있으며, 따라서 일탈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며, 동조는 설명되어야만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사회통제론의 가정이 위의 두 이론과 사뭇 다르다는 사실에 있다. Hirschi는 기본적으로 T. Hobbes의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가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비행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법은 그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의 구현체이기 때문에(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탈행위를 설명하는 일은 훨씬 쉬울 것이다) 그것은, ① 비행은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나 기대에 반대되는 것이며, ② 그들은 형벌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③ 그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④ 그들은 관례적인 도덕적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가정들을 수반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가정들이 사실이라면, 가장 일탈에 종사하기 쉬운 사람들은 ①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나 기대에 가장 관심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② 형벌의 위험에 가장 관심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③ 그러한 행위가 요구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④ 비행에 반대하는 도덕적 규범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 일 것이다(Hirschi, 1977 : 329).

이러한 가정에서 볼 때 Hirschi의 주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법에 복종시키는 친밀한 애착, 열망, 그리고 도덕적 믿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비행자들속에 있다고 본다”(1969 : preface)는 귀절로 간단히 요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원인들”이

란 비행을 생산해 내는 힘들인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Hirschi의 사회연대이론에 있어서의 “원인들”이란 비행의 발생을 방해하는 힘들인 것이다.

동조는 공통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화를 통하여 성취되며, 다른 사람과 제도에 대한 결속에 의하여 유지된다. 그러므로 원인에 대한 탐구는 필수적으로 제도와 사람들의 통제력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를 수반한다. 그러나 “그와같은 원인들이 개인들로 하여금 이탈자가 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그것들은 사람들을 유혹에 약하도록 하거나 유혹에 굴복되도록 할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Hirschi, 1977: 330)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Hirschi는 그의 최초의 논의(1969)에서 개인과 사회사이의 연대감이 네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밝힌다. 사회적 연대의 첫번째 요소는 중요한 타자에 대한 애착 *attachment*이다. 이것은 감정적 혹은 정서적 구성요소로 가족, 친구, 그리고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결속에 관심을 갖는다. 연대감의 두번째 요소는 관계적 행위에 대한 전념 *commitment*이다. 전념은 비용적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관계적 행동에 투자한 것을 잃을 위험을 말한다. 세번째 요소는 관계적 행동에 대한 개입 *involvement*으로, 이것은 기회적 구성요소를 말한다. 비행을 저지를 기회는 동조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관계적 행위에 대한 참여의 질과 양에 역으로 *inversely* 관련되어진다. 네번째 구성요소는 도덕적 요소로 믿음 *belief*이다. 이것은 사회나 집단내부에는 그 규범이 위반되고 있는 공통적 가치체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더욱이 사람들이 그러한 규칙에 복종

해야한다는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는 그러한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본다(Hirschi, 1984: 13-14).

Hirschi는 이러한 네가지 요소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네가지 요소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러가지 조합들 중 오직 세가지, 즉 애착과 전념, 전념과 개입, 그리고 애착과 믿음에 대하여서만 언급하고 있다. 그는 “실제로는 명백히 반대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관계적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애착과 성취에 대한 전념은 함께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1969: 27)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방향은 *positive*의 관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다른 조합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그는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이러한 것들 중 어떤 측면에서나 관계적 사회와의 결속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다른 측면의 것들과도 더욱 밀접한 결속을 갖게된다”(1969: 26)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Hirschi가 언급한 세가지 유형 이외에도 애착-전념으로부터 개입-믿음에 이르는 여타의 조합유형들에 대하여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Hirschi는 이러한 네가지 요소의 동시적 상호작용을 고려하고는 있지 않다는 이것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시도하지 않았다. 즉 그의 네 요소는 이론적으로는 상호작용의 관계를 가지면서도, 그의 경험적인 분석에서는 부가적 *additive*인 것으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이다.

Hirschi는 위와같이 그가 제시한 이론을 자신이 경험적으로 직접 검증해 보여주었다. Richmond Youth Project에서 조사된 1,588명의 비촉인 남성들의 표본에 대한 자료를 사용

하면서 사회적 연대감에 대한 그의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의 결과는 그의 가설들을 거의 모두 긍정하는 쪽으로 결론지워졌다.

2. Hirschi의 이론에 대한 경험적 검증들의 검토

Hirschi(1969)의 사회연대이론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경험적 우수성때문에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려는 이후의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 자극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어떤 것들은 Hirschi의 연구에 대한 충실한 반복을 통하여 그것에 대한 재검증을 시도하고 있으며(대표적인 것으로는 Hinderlang, 1973의 연구가 있음), 또 다른 것들은 사회연대요소들 중 Hirschi에 의하여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여 사회적 연대이론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Wiatrowski, et al., 1981), 그 이외의 것들은 경로분석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Hirschi의 사회연대이론을 다른 이론들과 비교 통합시킴으로써 사회연대이론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하려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본 논문과 관련되는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의 연구들중 중요한 것들 몇가지만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Hirschi의 뒤를 이어 그 다음에 출판된 사회연대이론에 대한 검증은 Michael Hindelang(1973)에 의한 반복적 연구이다. Hindelang(1973)은 6학년부터 12학년의 농촌 남녀 941명을 표본으로 사용하면서 Hirschi의 연구를 반복하였다. 이 연구에서 Hindelang은 일반적으로 연대적 요소들이 기대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Hirschi에 의하여 발견된 것과 비슷한 정도로 비행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일탈적 친구들에 관하여, Hindelang은 초기의 연구로부터의 중요한 이탈 *departure*에 주목하였다. Hirschi에 의하여 언급된—거기에서는 높은 애착을 보고한 사람들은 낮은 비행을 보고하고 있다(Hirschi, 1969: 135-161)—친구들의 단일 차원적 효과와는 반대로, Hindelang은 친구에 대한 애착은 친구가 비행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비행에 대하여 다양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행친구에 대한 애착은 비행에 대한 개입에 긍정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들 때문에, Hindelang은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다. “Hirschi의 통제이론은 친구의 애착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만 할 것이다. 즉 통제이론은 관계적인 친구와 비관계적인 친구에 대한 애착의 측면에서 재개념화될 필요성이 있을 지도 모른다.” (Hindelang, 1973: 487) 이것은 그 이후의 많은 연구들에 있어서 논쟁거리가 될 중요한 관찰이었다.

Joseph Rankin(1977)은 사회적 연대이론의 지지에 실패한 발견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미시건의 웨인지역에 있는 공립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 385명을 무작위로 표출한 표본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자료는 비행친구(비관계적 애착), 관계적 행동(개입), 교육적 기대(관여), 법에 대한 태도(믿음), 그리고 학교에 대한 애착(관계적 애착)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는 1974년 자기보고식 조사로부터 얻어졌다. 비행은 5개의 상이한 행위에 대한 응답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Rankin은 두개의 서로 분리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들 각각은 매우 상이한 발견을 보여주었다. 첫번째 분석에서 Rankin은 5개의

비행에 대한 각각의 구성요소들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개입은 독자적으로나 혹은 연대감의 다른 요인들과의 결합에 의하여서나 어떤 비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관여, 믿음, 그리고 학교에 대한 애착은 비행중 싸움에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Rankin에 의하여 수행된 두번째 분석은 연대이론에 대한 지지가 더욱 약하다. 이 분석에서 5가지의 비행, 비행친구, 믿음, 관여, 그리고 학교에 대한 애착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관련성이 조사되었다. 비행에 관한 오직 4개의 독립적 효과만이 발견되었다. 부모에 대한 반항과 애착 및 관여의 효과, 음주에 대한 믿음의 효과, 그리고 사소한 절도에 대한 애착의 효과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독립적 효과는 예측되었던 방향과는 반대로,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발견되었다. 따라서 Rankin은, 하나의 확실한 발견은 관계적 행위에 대한 개입은 비행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의 분석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연대적 요소와 비행의 심각성에 대한 논쟁에 착수한 연구가 Marvin Krohn and James Massey(1980)에 의하여 출판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사회적 연대의 요소중 어떤 것이 비행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으며, 연대감은 어떤 유형의 비행을 더 잘 설명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각각의 연대감 요소의 상대적 효과 이외에도, 4범주의 비행에 대한 모델의 전체적인 효과도 또한 관심의 대상이다. 이 연구의 발견들은 연대요소 어느 한 가지나 혹은 결합된 요소들의 약화는 비행에 대한 개입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명제를 지지하였다. 이 이론의 지지는 4개의 비행 지표 모두에 대하여 발견되었다. 그러나 연대

감의 각각의 요소들 뿐만이 아니라 모델 전체도 심각한 형태의 비행에 대하여 보다는 덜 심각한 형태의 비행에 대하여 예측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애착요소는 비행에 대한 모든 범주에서 가장 낮은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사소한 마약의 사용은 예외로 하고 전념요소는 범주 전체에 걸쳐서 가장 강한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Hirschi가 처음에 구성한 이론에 대한 비판에 기초하고 있는 Krohn and Massey의 연구에 의하여 애착과 전념에 대한 지표들의 개념적 재정립을 반주하게 하고 있다. 애착에 대한 Hirschi의 측정이 학교에 대한 애착을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적 결속(선생)과 사회적 제도(학교)에 대한 애정적 결속 둘 다를 언급하게 함으로써 개념적으로 힘들게 하였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Krohn and Massey는, 비행과 관련된 요소들은 약한 결속이 비행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하여 연대감 모델속에서 구성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함으로써, 그들 분석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우리들은 일단 연대감이 약화되거나 파괴되어버린 경우에, 왜 어떤 청소년들은 비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은 저지르지 않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발견은 비행에 대한 친구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앞으로의 시도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 이외에도 Krohn and Massey(1980)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이전의 발견들과는 반대로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도 더욱 강력한 독립변수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어머니에 의한 매일 매일의 감독이 더 강하다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Hirschi는 애착

은 육체적 존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측면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연대모델에 대한 또 다른 검증은 Wiatrowski와 그의 동료들(1981)에 의하여 출판된 연구이다. 연구자들은 Youth in Transition 연구(Bachman et al., 1969)로부터 나온 자료들에 기초하여 Hirschi(1969)의 원래모델을 부분적으로 다중변량적 모델을 통하여 검증하는 것이었다.

Hirschi(1969)의 이론과 조사에 들어있는 세 개의 결점이 Wiatrowski 등에 의하여 발견되고 검증된 세 모델을 위한 기초로서 사용되었다. Hirschi의 결점은 첫째, 각각의 연대감 요소들이 어느정도까지나 상이한 *distinct* 사회화 요소들을 대표하는가를 보여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오직 네가지 요소만의 연대요소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적 직업적 열망이 Hirschi이론의 중심적인 것임에 반하여, 그는 이전에 그러한 열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던 구성들(예를 들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을 통합시키는데 실패하였다.

Wiatrowski와 그의 동료들(1981)에 의하여 검증된 첫번째 모델은 각각의 개별적인 연대적 요소들이 어느정도까지나 비행의 설명을 위하여 고유한 기여를 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졌다. Hirschi에 의하여 사용된 것과 일치하는 23개의 개별적 지표들이 다양한 연대적 요소들을 대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완전모델에 의하여 설명된 전체변량($R^2=.318$)은 개별적인 요소들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었다.

그 다음의 분석에서, Wiatrowski와 그의 동료들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그들이 사회적 연대

의 요소로서 선정한 항목들을 조사하였다. 저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특수한 발견들은 학교에 대한 애착, 학교에 대한 개입, 높고 낮은 지위 관여(열망), 부모에 대한 애착, 그리고 친구에 대한 애착만을 포함시키는 사회연대의 재해석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는 Hirschi에 의하여 제안된 것과 같이 연대감의 네 요소에 대한 “단순한” 다중변인적 경로모델의 설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신적 능력이 포함되었으며, 이것들은 외부변수로서 수정된 형태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는 연대감의 각각의 요소들은 비행의 설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Wiatrowski와 그의 동료들은 이 연구의 이전의 분석에 의하여 제안된 개혁과 대안들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복잡한” 경로분석의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신적 능력이 모델의 각각의 요소에 영향을 주는 외부변수로서 취급되었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사회연대의 기초인 것으로 고려되어졌으며, 교육에 대한 전념, 직업적 열망, 데이트, 그리고 학교에 대한 애착과 개입과 같은 다른 요소들 즉 독립변수로서 믿음에 인과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위치지워졌다. 사회적 연대의 수정된 13-항목 모델은 비행 분산의 35%를 설명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것은 23개의 항목을 사용하여 처음에 수행된($R^2=.318$) 다중회귀와 비교할만한 강력한 것이다. 또한 더 적은 항목을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모델은 “단순한” 경로모델보다 변량의 14% 이상을 더 설명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 좀 더 간결한 개념화를 하나의 예로서 그리고 연대이론의 미래적 수정을 위한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다.

Liska and Reed(1985)는 Youth in Transition Study를 사용하면서 두번에 걸쳐서 1,889명의 남성들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분석을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에 대한 애착이 비행에 대하여 가지는 효과에만 제한시키고 있다. 애착의 측정은 이 개념에 대한 것을 만들어낸 Hirschi의 것과 비슷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비행은 두개의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그것은 대인 폭력과 절도/파괴였다.

Liska and Reed(1985)는 비순환적인 모델 *nonrecursive model*과 그러한 자료가 그들의 모델에 적합하다고 가정하였다. 그들은 부모에 대한 애착, 비행, 그리고 학교에 대한 애착사이에는 호혜적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그들은 낮은 부모에 대한 애착은 비행에 이르게 하며, 높은 비행은 학교에 대한 애착을 낮추며, 그리고 학교에 대한 애착은 부모에 대한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Liska and Reed(1985)의 접근은 사회연대의 연구에 있어서 좀더 복잡한 인과모델의 설명을 위한 재미있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외에도 Elifson와 그의 동료들(1983), Tittle과 Welch(1983), 그리고 Sloane과 Potvin(1986)과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회제도들 특히 종교에 대한 결속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사회통제이론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Lyster와 Skipper(1981) 그리고 Gardner와 Shoemaker(1989)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사회적 결속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가정하고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사회적 결속이 강하며, 이것이 도시와 농촌지역에서의 청소년비행율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인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3. 문제의 진술과 분석모델의 구성

Hirschi의 이론과 경험적 검증 그리고 그의 이론에 대한 이후의 경험적 검증들에 의한 발견과 확장 그리고 비판들을 통하여 돌이켜보면, 우리는 사회연대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일차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이 글의 가설적 문제들의 진술과 그에 대한 접근방식과 분석을 위한 모델의 구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Hirschi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연대의 네 요소는 과연 상호배타적이며, 이들의 측정지표들은 진정으로 구분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지표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두번째 문제는 사회연대의 네 요소가 비행에 대하여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의 문제이다. 상대적 중요성의 문제는 다시 두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사회연대의 네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각각의 요소들 내부에 존재하는 지표들간의 상대적 중요성의 문제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 Hirschi(1969)는 그의 연구에서 애착의 요소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개입을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약한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Krohn과 Massey(1980)의 조사 결과는 애착이 가장 낮은 비행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념이 가장 강한 요소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애착의 지표들,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아버지의 애착과 어머니의 애착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상대적 중요성도 우리들의 관심대상이 된다(Krohn과 Massey, 1980).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각 요소들과 요소들내의 하위 지표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에서, 애착은 부모에 대한 애착에 한정시키기로 한다.

세번째 문제는 사회연대 요소들간의 인과적 서열 *causal ordering*의 문제이다. Hirschi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관심대상이 된다. Wiatrowski와 그의 동료들(1981)과 그 이외의 많은 연구자들은 경로분석을 통하여 Hirschi 이론의 검증을 위하여 연대요소들간의 인과적 서열을 구성하였다. 그들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다른 어느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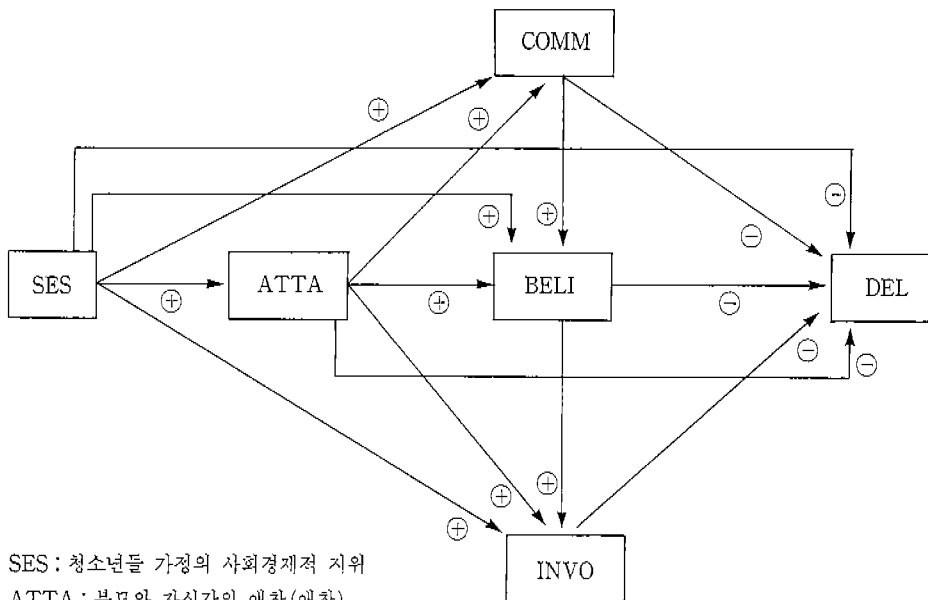
인들보다도 선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우리의 경로분석에서도 부모에 대한 애착을 다른 어느 요소보다도 선행하는 것으로 보고 모델을 구성하였다.

네번째 문제는 비행친구의 중요성에 대한 Hirschi의 과소평가였다. Hirschi의 이론에 대한 이후의 많은 증거들이 지적한 것에 의하면, 비행친구에 대한 애착은 비행에의 개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 문제는 후에 Hirschi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비행친구에 관한 문제는 문화적 일탈이론과 중복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순수하게” 사회연대이론을 취급하는 이 글에서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다섯번째 문제점은 Hirschi의 사회연대이론

〈그림 1〉

사회연대이론의 인과모델



- SES : 청소년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ATTA : 부모와 자식간의 애착(애착)
 COMM : 진학과 직업에 대한 열망(전념)
 BELI : 관례적 규범에 대한 믿음(믿음)
 INVO : 관례적인 행동에 대하여 보내는 시간의 양(개입)
 DEL : 비행유형

은 심각한 비행보다는 사소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Rankin(1973) 이외에도 여러사람들에 의하여 지적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행의 심각성에 대한 요인분석의 측정을 통하여 이 문제에 접근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Hirschi는 사회계층과 비행은 중요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1969: 66-75). 그러나 이 문제는 범죄사회학에서 아직도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Braithwaite, 1981; Tittle and Villemez, 1977; Tuttle et al., 1979 등을 참조할 것). 이 글에서는 외개변수로 사회계층을 취급하고 이것이 연대요소들과 비행 유형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해 보기로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이 글에서 검증하고자하는 변수들의 관계는 <그림 1>과 같은 형태의 모델로 구성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의 성격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김준호 외,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의 압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을 위하여 수집된 것을 사용하였다.²⁾ 이 자료는 전국 6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그리고 인천-에 있는 인문계 주간·야간, 그리고 실업계 주간·야간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다.³⁾ 전국

각 도시의 고등학교 유형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정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보고식의 방법으로 질문지를 완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자료의 수집기간은 1989년 10월 13일에서 27일까지였다. 재학생들에게 배부된 질문지의 수는 총 2,775부였으며, 그중 2,636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95%였다. 그중 부호화의 과정에서 무응답이 많거나 성실히 응답하지 않아 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질문지를 제외시키고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된 질문지를 수는 2,365부였다.

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측정

1) 비행과 비행유형의 측정

청소년비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30가지의 비행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비행항목은 흡연, 술집 출입, 당구장 출입, 디스크장 출입, 비디오가 있는 만화가게 출입, 사창가 출입, 음란전화 걸기, 길가는 여성의 희롱, 추행, 강간, 귀가시간 어기기, 등록금 유용, 무단결석, 돈내기 도박, 주인의 허락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기, 공공기물의 파괴, 타인의 물건파손, 5,000원 이상의 절도, 5,000원 이하의 절도, 패싸움, 폭행, 흥기소지, 가솔, 음란서적 소지, 음란비디오 관람, 환각제나 본드의 사용, 금품갈취(뺑 뜯는 것), 이성과의 성관계, 혼숙, 컨닝 등이다.

이와같이 30개 항목을 제시한 후에 항목에 따라서 지난 일년 동안 또는 지금까지 그러한 비행을 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2) 이 연구를 위하여 자료의 사용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덕성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김준호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3) 원래의 연구에서는 표본에 재수생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재학생과 재수생의 표본의 수의 차이와 사회적 위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수생을 제외시키고 재학생들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청소년비행에 대한 요인분석

	Factor I	Factor II	Factor III	Factor IV	Factor V	comm.
흡연	.5683	.4275	-.0149	.1323	.2282	.57553
당구장 출입	.6798	.3066	.0409	.0633	.1720	.59144
디스코장 출입	.5355	.4910	-.0188	.1470	.2447	.60964
취가시간 어김	.6248	.2389	.1540	.0184	.0088	.47155
등록금 유용	.4663	.1652	.2545	-.0003	.0441	.31144
도박	.5736	.1002	.3016	.0803	.0600	.44010
음란잡지	.5337	.0093	.3484	.2637	.0171	.47663
음란비디오	.6261	.1151	.1546	.2618	.1422	.51791
컨닝	.5030	-.0627	.3432	.1186	.0563	.39193
일일찻집 출입	.4958	.4762	.0685	.1974	.0226	.51680
술집 출입	.5203	.5331	.0184	.2091	.1539	.62257
무단결석	.1578	.5062	.1696	.0919	.2577	.38480
구타	.2294	.6315	.1655	.2482	.0565	.54360
패싸움	.2086	.6907	.1022	.2099	.1561	.59940
가출	.0991	.5813	.1554	-.0638	.2660	.44663
금품탈취	.2447	.4529	.3994	.1268	.1128	.45328
흔속	.2709	.4919	.0906	.1524	.4822	.57933
일일찻집 주취	-.0163	.4742	.0291	.2450	.0243	.28657
주거침입	.0138	.0767	.5843	.0814	.0115	.36439
공공기물파괴	.2568	.3580	.5299	.2433	-.1500	.55660
기물파손	.2425	.3277	.6123	.1851	-.1461	.59677
절도	.1141	.0844	.6048	.1142	.4144	.57072
소액절도	.2333	.0252	.6346	.1246	.2778	.55044
만화가게출입	.3687	.1301	.0282	.4066	.0920	.32739
사창가 출입	.0485	.1969	.0884	.4960	.3883	.44573
음란전화	.0457	.1889	.7224	.6555	.1315	.51445
여성회통	.2283	.3293	.1375	.5706	.1116	.55505
여성추행	.3045	-.0222	.2017	.5748	.0190	.46457
강간	-.0153	.1106	.1018	.2468	.6537	.51109
약물사용	.1740	.4348	.1651	-.0909	.4747	.48003
성관계	.2455	.4475	.1054	.1787	.6062	.67103
Eigenvalue	9.93642	1.97075	1.67506	1.18373	1.02040	

하였다. 그리고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그 빈도에 대하여서도 질문하였다. 그리고 그 빈도들을 고려하여 그것을 등간척도의 수준으로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eigenvalue의 크기는 1.0이었으며, 분석 결과 요인 1의 eigenvalue의 크기가 9.9로서 30개 비행 전체가 거의 하나의 단일차원임을 알 수 있었다. 비행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요인분석의 결과 Factor I은 “사소한 비행(DEL1으로 약술됨)”으로, Factor II는 “폭력성 비행(DEL2로 약술됨)”으로, Factor III은 “재산비행(DEL3으로 약술됨)”으로, Factor IV와 Factor V는 논리적으로 같은 성격의 비행이므로 결합하여 분석하기로 하였으며, “성 비행(DEL4로 약술됨)”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실재 분석에서는 부하계수가 0.5 이상인 것만을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켰다(이하 모든 요인분석에서 동일함).

2) 사회연대요소에 대한 측정

Hirschi의 사회연대의 네 요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Hirschi(1969)의 측정을 준중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척도를 구성하였다. 애착의 경우 먼저 애착의 방향에 따라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착”과 “자식의 부모에 대한 애착”으로 나누었으며, 다음 각각에 대하여 “정서적 친밀”과 “의사소통”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아버지에 대한 것”과 “어머니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모두 17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념에 대한 문항은 2개, 개입에 대한 문항은 4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례적 규범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4개로 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⁴⁾. 또한 사회연대를 측정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어느 요소에 대한 측정이라고 정확하게 정의내릴 수 없는 문항들을 포함시켜 질문내용을 구성하였다. 각 질문들은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예측한대로 각 요소들은 상호배타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여기에는 실제 분석의 대상이 된 요인만을 제시하였으며, 문항 앞에 제시된 것은 변수의 번호이다).

아버지의 애착(의사소통 및 정서적 친밀성) : ATOF

	부하계수
v15. 아버지는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0.7528
v17. 아버지는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0.7726
v19. 나는 장차 나의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0.7255
v20.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0.7661
v23. 아버지와 나의 의견은 거의 비슷하여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0.6029
v25. 아버지는 나와 자주 이야기하시는 편이다.	0.6105
v30. 아버지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시는 편이다.	0.5961

4) 각 연대 요소들에 대한 척도의 문항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준호 외, 1990, pp. 225-249를 참조할 것.

어머니의 애착(의사소통 및 정서적 친밀성) : ATOM

		부하계수
v16.	어머니는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0.7147
v18.	어머니는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0.7074
v21.	나는 친구들 보다는 부모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0.4623
v22.	부모님의 근심,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늘 노력하는 편이다.	0.4321
v24.	어머니와 나의 의견은 거의 비슷하여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0.5622
v26.	어머니는 나와 자주 이야기하시는 편이다.	0.5890
v31.	어머니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시는 편이 다.	0.5310

공부에 대한 개념 : HINV

		부하계수
v37.	학교에서 나는 항상 열심히 공부한다.	0.7053
v39.	방과 후에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하는 데 보낸다.	0.8153
v40.	학교공부 때문에 친구를 만나거나 여가활동을 할 시간 이 거의 없다.	0.6951
v41.	학교공부가 요즘은 나의 생활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0.7533

관례적 믿음 : BELI

		부하계수
v47.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옳지 않은 일(컨닝 혹은 부정)을 해도 상관 없다.	0.6764
v48.	발각되지 않는다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	0.7984
v49.	출세를 위해서는 능력이나 노력 못지않게 맥이 필요하 다.	0.6002
v50.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0.6235

또 하나의 문제는 “전념(COMM으로 약술됨)”을 측정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전념은 다른 문항에서 제시된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직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두 질문을 합하여 전념의 척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지위(SES)는 가정의 수입, 부친의 직업, 그리고 부친의 학력에 대한 세가지 문항들에 대한 합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IV. 조사결과와 토론

1. 사소한 비행에 대한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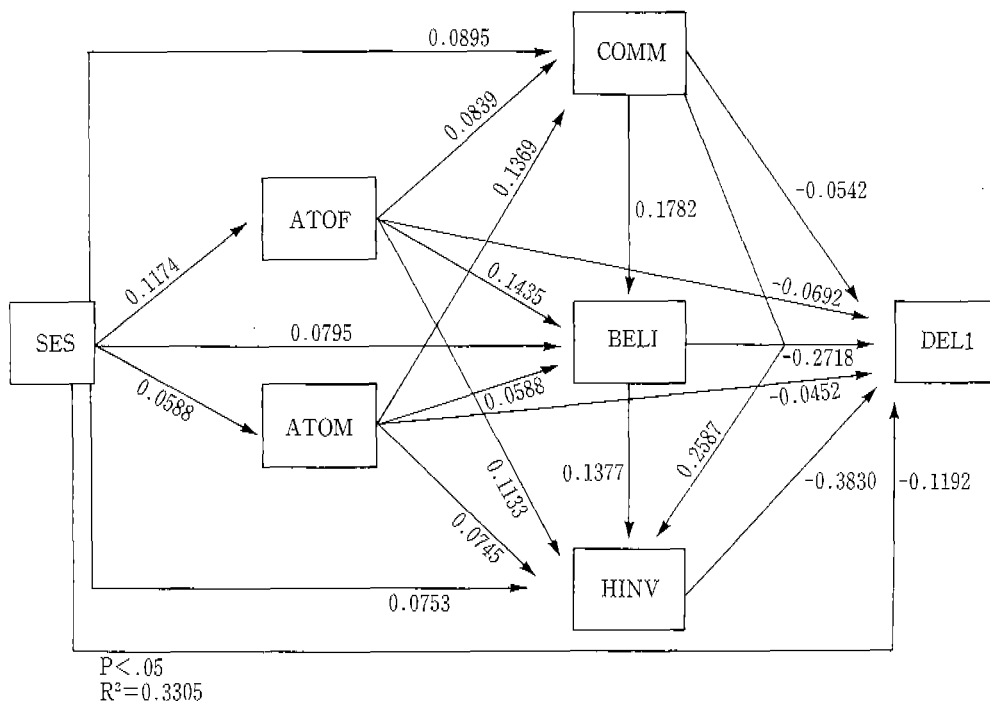
외생 변수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연대의

요소들을 측정된 각각의 변수들이 청소년들의 비행을 통제하는 데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첫번째 대상이 된 것은 “사소한 비행”이 사회연대요인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어떤 경로들을 통하여 통제되는가에 대한 분석이었다. 경로분석의 결과가 <그림 2>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2>를 보면, 먼저 Hirschi가 말하는 사회연대의 각 요소들이 비행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연대이론의 주장이 우리사회의 청소년 비행에서도 경험적 적합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대요소들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면 경험적 검증의 결과가 Hirschi의 주장

<그림 2> 사소한 비행에 대한 경로분석



과 어느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irschi는 사회연대의 요소 중 애착 *attachment*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개입을 설명력이 약한 요소로서 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사회연대요소들의 비행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들 *path coefficients*의 크기를 보면, 학교에 대한 개입 (HINV)이 -0.3830으로 가장 크며, 관계적 믿음(-0.2718),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0.0692), 전념(-0.0542),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0.0452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가하는 공부에 대한 압력이 강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공부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부에 대한 좌절이나 혹은 좌절로 인한 고통을 회피할 수 있는 대안의 결여가 비행의 원인으로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림 2>가 보여주고 있는 또다른 중요성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보다 비행에 주는 영향이 비록 적은 차이이기는 하지만 크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할 때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험적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사회통제의 의미에서 보면,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통제보다는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통제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 그리고 Hirschi가 말하는 것과 같이 애착에 의한 통제는 함께 보내는 접촉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차원의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타당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행과의 관계는 유의미하며, 그 크기는 경로계수가 -0.1192로 <그림 2>의 변수들 중 세번째로 크다.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비행의 관계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아직까지도 일탈사회학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일단 그 관계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만 지적해 두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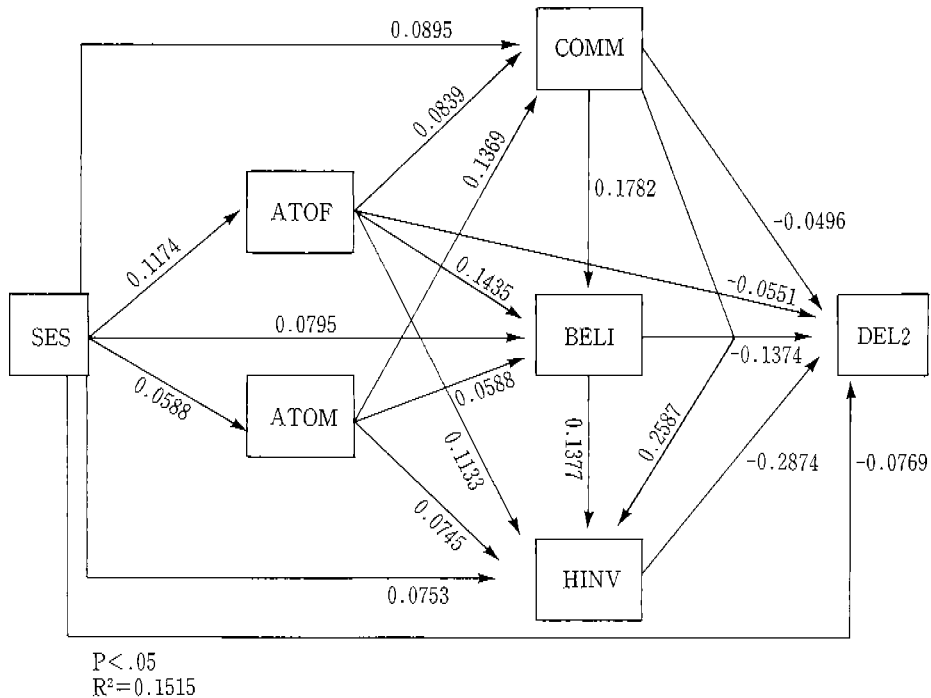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지적해야만 할 것은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다. 모델의 하단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R^2=0.3305$ 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모델에서 사용된 변수들이 비행의 변량의 33.05%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타의 사회학적 연구들의 결과들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irschi의 사회연대이론이 “사소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크다는 것은 일단 검증된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이후에서 보여질 다른 비행유형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2. 폭력성 비행에 대한 경로분석

<그림 3>은 폭력성 비행에 대한 경로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이 모델의 분석결과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이 이 모델의 폭력성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다. $R^2=0.1515$ 로 폭력성 비행의 변량의 15.15% 밖에 설명하고 있지 못하며, 이것은 사소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의 절반의 수준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연대이론은 “심각한 비행”보다는 “사소한 비행”을 설명하는 데

〈그림 3〉 폭력성 비행에 대한 경로분석



더 적합한 이론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검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연대요소들 각각의 변수들이 비행과 맺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의 크기도 “사소한 비행”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요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사소한 비행”과 비슷하다. 즉 학교에 대한 개입(-0.2874)이 가장 많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다음 관계적 믿음(-0.1374), 아버지에 대한 애착(-0.0551), 그리고 전념(-0.0496)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전념, 믿음, 그리고 학교에 대한 개입에 대하여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역시 비행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소한 비행에서와

마찬가지로 폭력성 비행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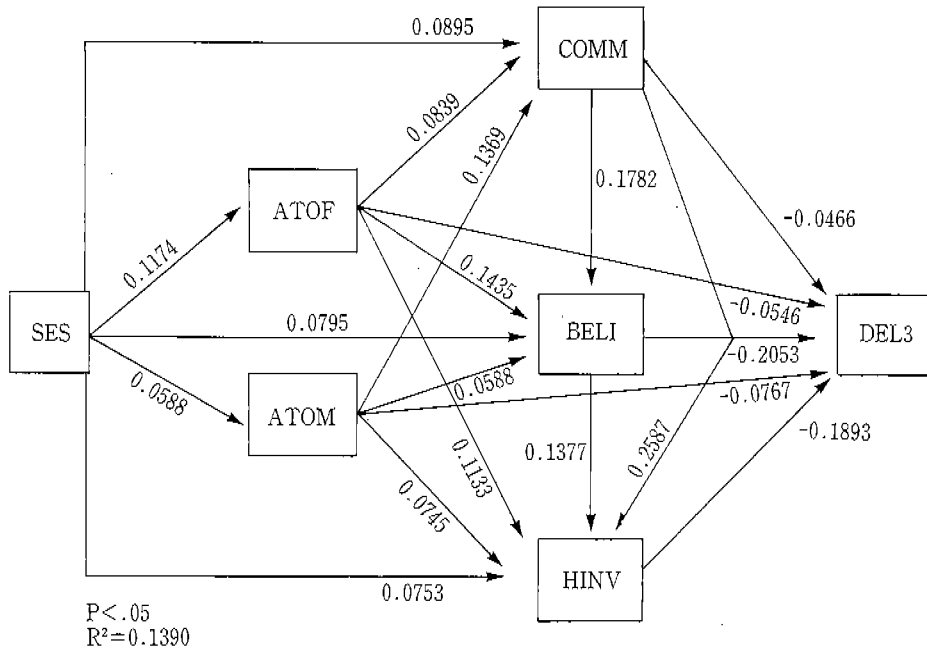
3. 재산비행에 대한 경로분석

〈그림 4〉는 재산비행에 대한 경로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R^2 = 0.1390$ 으로 모델의 재산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연대 요인들은 모두 재산비행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상대적 크기는 앞의 두 비행유형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는 관계적 믿음(-0.2053)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것은 아마도 재산비행이 도구적 일탈이라는 사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4〉

재산비행에 대한 경로분석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개입(-0.1893), 어머니에 대한 애착(-0.0767),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0.0546), 그리고 전념(-0.0466)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델의 해석에 있어 두가지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재산비행이 도구적 비행이라면 그것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접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재산비행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보다도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 두 문제는 여기서 쉽게 해석될 수 없는 하나의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성적 비행에 대한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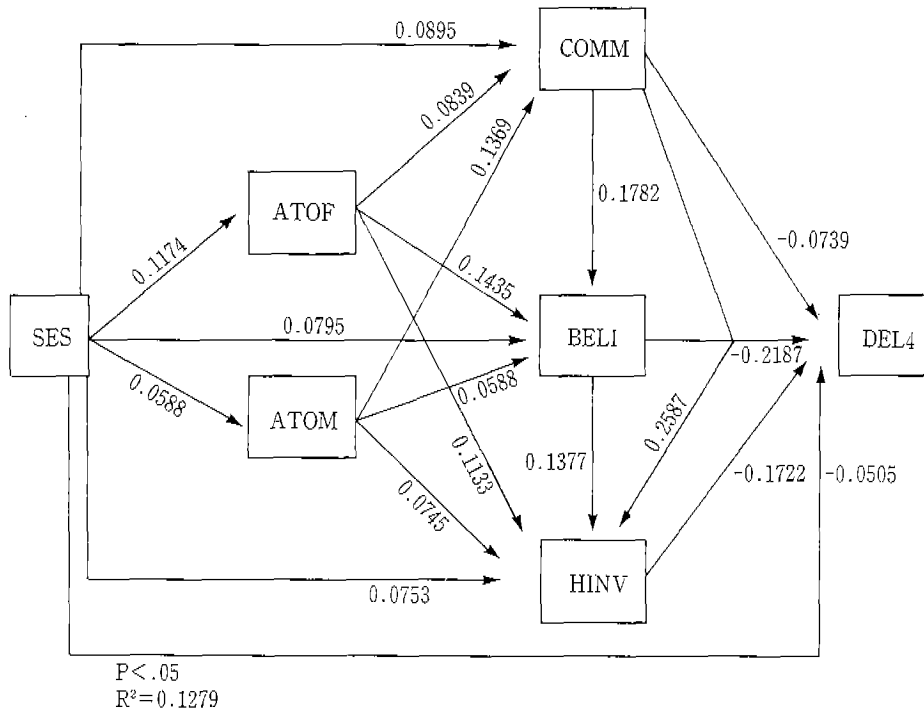
〈그림 5〉는 합성된 성비행과 사회연대요소간

의 경로분석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 5〉가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성 비행은 사회연대의 요소중 전념, 믿음, 그리고 개입과는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Hirschi가 가장 중요한 연대요소로 인정하였던 애착이 본 연구에서는 성비행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대요소들간의 직접적인 상대적 중요성은 믿음(-0.2187)으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이 개입(-0.1722), 전념(-0.073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도 비록 크지는 않지만 성비행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연대요소들의 성비행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량은 $R^2 = -0.1279$ 로 비행의 12.79%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명량은 앞의 세 비행유형에 비해서는 가장 작은 것이

〈그림 5〉 성 비행에 대한 경로분석



지만, 재산비행이나 폭력적 비행의 설명량과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전체비행에 대한 경로분석

앞의 〈표 1〉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요인분석을 보면 “요인 I”의 eigenvalue가 9.9364로 모든 비행이 하나의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모든 비행을 결합하여 하나의 변수로 만들고 이것을 사회연대요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림 6〉은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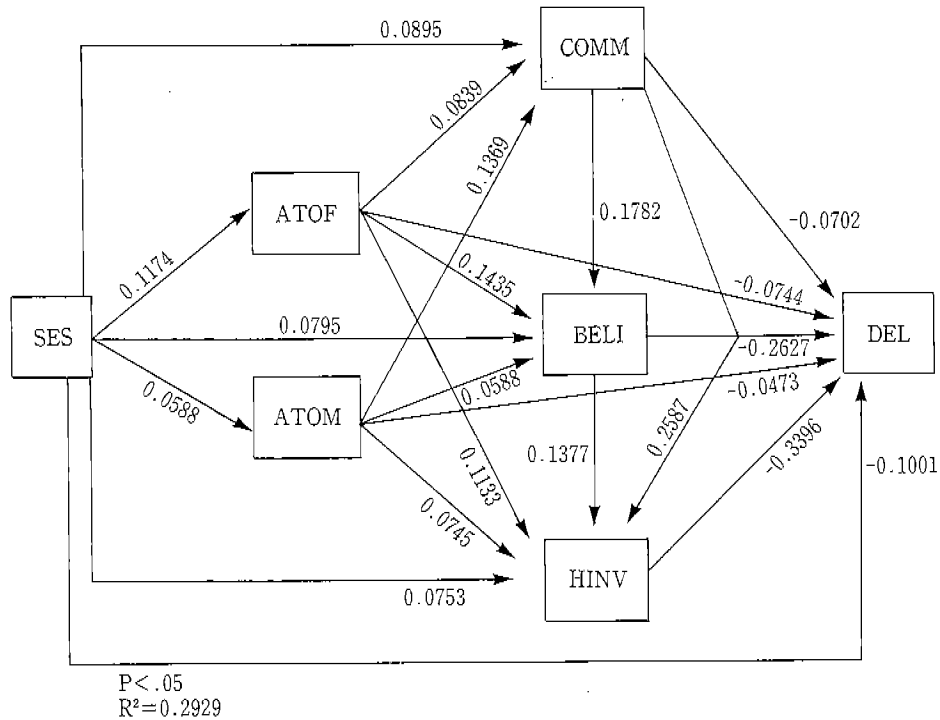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비행의 유형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림 6〉에 의하여 전체비행에 대한 사회연대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보면, 우선 $R^2=0.2929$ 로 적지 않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연대요소들은 모

두 전체비행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대요소들의 비행에 대한 직접적인 상대적 중요성을 보면, 학교에 대한 개입이 -0.3396으로 가장 크며, 그 다음 순서를 보면 관계적 믿음이 -0.2627,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이 -0.0744, 전념이 -0.0702,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0.0473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주는 영향은 -0.1001로, 전체 변수중 세번째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Hirschi가 가장 중요시한 “애착”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나머지 세 요소에 비하여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Hirschi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개입”이 이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림 6〉

전체 비행에 대한 경로분석



는 것을 알 수 있다.

6. 모델의 수정

이상의 경로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Hirschi(1969)의 사회연대이론에 대한 경험적 검증의 결과는 Hirschi 자신의 분석결과와는 반대로 애착이 가장 영향력이 적은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Krohn and Massey(1980)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Krohn and Massey(1980)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강하다는 일반적 사실과는 다른 결과를 얻었지만, 이 연구는 그들의 연구결과와는 그 점에서 또한 다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애착의 설명력이 다른 요소들에 비하여 낮음에도 불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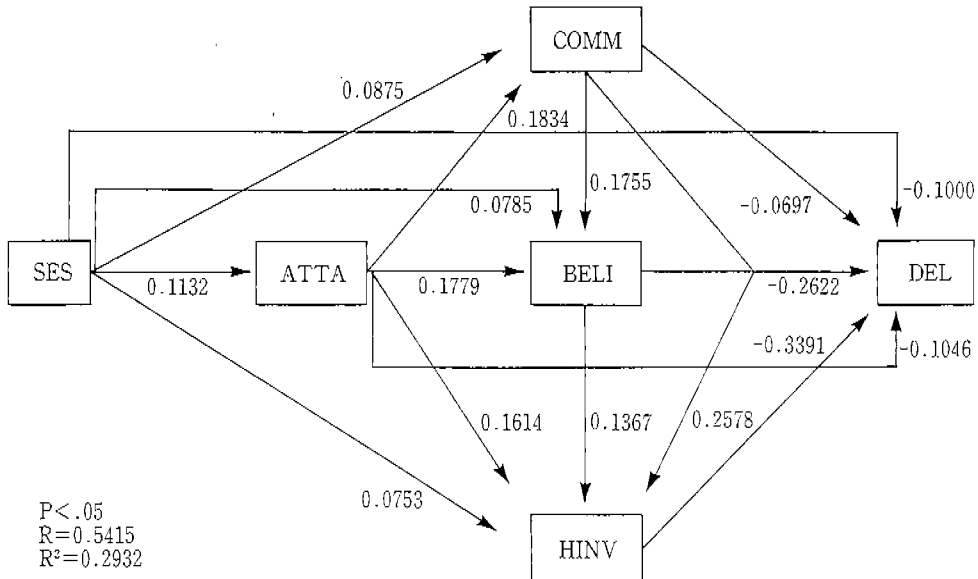
(다른 요소들과 비교하여 비행과의 단순상관관계도 상당히 낮음), 이것을 구태여 두 차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의 변수로 결합시키는 것이 더 높은 설명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변수를 결합시켜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 수정된 모델을 분석해보기로 하였다.

〈그림 7〉은 수정된 모델에 대한 경로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7〉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수정된 모델에서 사회연대의 네 요소는 모두 전체비행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각 요소의 비행에 대한 직접적인 상대적 중요성을 보면, 공부에 대한 개입(HINV)이 -0.3391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은 믿음(BELI)이 -0.2622이고, 애착(ATTN)이 -0.1046이며, 전념(COMM)이

<그림 7>

전체비행에 대한 수정된 경로분석



0.0697로 가장 적다. 이것은 결국 애착을 세분화하였을 경우 설명력이 분산되어 전념보다도 적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는 역시 비행과 유의미한 관계(0.1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정도는 전념보다도 약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수정된 모델의 설명력($R^2=0.2932$)이 수정되기 이전의 설명력(전체비행의 경우 <그림 6>의 $R^2=0.2929$)보다는 약간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우, 부모에 대한 애착은 결합된 형태로 측정될 때,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는 중요한 발견을 하였다. 이것은 이후의 연구들을 통하여 좀 더 정교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앞으로의 과제

이 글은 Hirschi(1969)의 사회연대이론이 가

지고 있는 이론적 경험적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 이론이 우리사회의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해보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의 또 하나의 목적은 Hirschi(1969)의 원래의 이론에 대한 그 이후의 많은 경험적인 검증들에 의하여 제기된 논의와 비판들도 아울러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우리는 Hirschi(1969)의 글과 그의 이론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고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가설적 문제들, 즉:

- 1) 사회연대의 네 요소, 즉 애착, 전념, 믿음, 그리고 개입은 그것들을 측정하는 척도들 사이에 상호배타성이 존재하는가?
- 2) 사회연대의 네 요소는 비행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 3) 사회연대의 네 요소들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적 서열이 존재하고 있는가?
- 4) 사회연대이론은 과연 심각한 비행보다도

사소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더 크다는 주장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 5) 외생변수로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비행과 관계가 있는가?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요인분석의 결과 사회 연대의 네 요소를 측정하는 척도들은 상당한 혼란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념과 믿음의 척도들은 상호배타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네 요소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같이 근본적으로 이론적 혹은 개념적인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둘째,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으로 분리되었을 때 보다는 하나의 변수로 결합되었을 때 비행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력이 더욱 강하여 진다.

셋째, Hirschi는 사회연대의 요소중 애착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분석의 결과는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명력의 정도는 개입, 믿음, 애착, 그리고 관여의 순서였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많은 경험적 검증을 필요로 하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공부에 대한 개입과 비교하여 해석해 볼 때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이 공부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국 그것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영향이 비행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넷째, Hirschi(1969) 이후의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사회연대이론은 심각한 비행보다는 사소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론에 대한 앞으로의 검증들과 비교함으로써 더욱 명백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지위의 비행에 대한 영향은 비록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모든 유형의 비행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이 연구가 자기보고식 연구였다는 사실에서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겠다(Hinderlang et al., 1979를 참조).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전망 가운데 중요한 것 몇가지를 언급함으로써 이 연구의 끝을 맺고자 한다. 첫째, Hirschi는 친구에 대한 애착을 연구에 포함시켰으며, 그 이후의 많은 연구들이 친구의 영향에 대한 더욱 정교화된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Hirschi에 대한 많은 비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친구의 영향을 분석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설명력을 낮추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비행에서 친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차후의 연구에서 좀더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둘째, 이 연구의 모델의 설명력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만약 다른 이론에서 제시되는 중요한 변수들을 포함시켰다면 설명력이 훨씬 더 높았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비행의 설명을 위한 통합모델적 접근을 시도해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단적 연구에 의한 이론적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연대이론은 횡단적 조사에서는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종단적 조사들에 의한 연구는 연대이론의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Agnew, 1985). 종단적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회연대이론은 종단적 연구에 의한 검증은 어떻게 버티어낼 것인가가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종단적 연구가 전무한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Hirschi는 연대요소들간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네 요소들은 Hirschi가 검증한 것과 같이 단순히 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볼 때 상호작용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이에 대한 검증으로는, Poole and Regoli, 1979; Thompson et al., 1982; Elliott et al. 1985 등을 참조할 것). 이러한 상호작용적 모델에 대한 경험적인 검증이 앞으로 요청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익희(1986),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T.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 외(199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남재봉(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원인변인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3·4 합병호), pp. 73-99.
- 이태원(1990), "모순적 사회화와 청소년 비행", 형사정책연구(3·4 합병호), pp. 101-126.
- 전숙자(1985), 도시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관한 연구: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gnew, R.(1985), "A Revised Strain Theory of Delinquency", *Social Forces* 64, pp. 151-167.
- Braithwaite, J.(1981), "The Myth of Social Class and Criminality Reconsidere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pp. 36-57
- Caulfield, S.L.(1988), *An Extension and Refinement of Hirschi's Social Control Theory: Analyzing Interactions among the Elements of the Social Bond*, Ph. D.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 Elifson, K. W., D.M. Petersen and C.K. Hadaway(1983), "Religiosity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4, pp. 505-527
- Elliott, D. S., D. Huizinga, and S. Ageton(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Beverly Hills: Sage.
- Gardner, L.(1984), *"Social Bonding and Delinquency: A Multivariate Analysis"*, Ph. D.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Gardner, L. and D.J. Shoemaker(1989), "Social Bond and Delinquency: A Comparative Analysi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0(3), pp. 481-500.
- Hindelang, M.J.(1973), "Cause of Delinquency: A Partial Replication and Extension

- sion", *Social Problem*, vol. 20.
- Hinderlang, et al.(1979), "Correlates of Delinquency: The Illusion of Discrepancy between Self-Report and Official Measures", *ASR* 6(4), pp. 995-1014.
- Hirsch, T.(1969), "*Cause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77), "Causes and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Sociological Inquiry* 47, pp. 322-341.
- Krohn, Marvin D. and James L. Massey(1980), "Social Control and Delinquent Behavior: An Examination of the Elements of the Social Bond", *Sociological Quarterly* 21, pp. 529 -543.
- Liska, A.E. and M.D. Reed(1985), "Ties to Conventional Institutions and Delinquent Behavior, Estimating Reciprocal Effects", *ASR* 50, pp. 547-560.
- Lyerly, R.R. and J.K. Skipper, Jr.(1981), "Differential Rates of Rural-Urban Delinquency: A Social Control Approach", *Criminology* 19, pp. 385-399.
- Poole, E.D. and R.H. Regoli(1970), "Parent Support, Delinquent Friend and Delinquency; A Test of Interaction Effect",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Vol. 70, pp.
- Rankin, J.H.(1977), "Investigating the Interrelation among Social Control Variable and Conformity",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67(4), pp. 470-480.
- Shoemaker, D.J.(1984), "Theories of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Explanations of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loane, D.M. and R.H. Potvin(1986), "Religion and Delinquency: Cutting Through the Maze", *Social Forces* 65, pp. 87-105.
- Thompson, W.E., K. Smith-DiJulio, and T. Matthews(1982), "Social Control Theory: Evaluating a Model for the Study of Adolescent Alcohol and Drug Use", *Youth and Society*, 13(3), pp. 303-326.
- Thompson, W.E., J. Mitchell, and R.A. Dodder(1984), "An Empirical Test of Hirsch's Control Theory of Delinquency", *Deviant Behavior*, 5(1-4), pp. 11-22.
- Tittle, C.R., W.J. Villemez and D.A. Smith(1978), "The Myth of Social Class and Criminality: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Empirical Evid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 pp. 643-656.
- Tittle, C.R. and M.R. Welch(1983), "Religiosity and Deviance: Toward a Contingency Theory of Constraining Effects", *Social Forces* 61, pp. 653-682.
- Wiatrowski, M.D., D.B. Griswold and M.K. Roberts (1981),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6.